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27 주차 (롬 9:19~10:7)

(2016년 3월 4일 - 2018년 3월 10일)

(제5권 27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3 월 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주일)

오늘의 본문 (롬 9:19~23)

- ¹⁹ Ἐρεῖς μοι οὖν· (그러면 당신들이 나에게 말[질문]할 것이다)
 τί [οὖν] ἐτι μέμφομαι; (왜 하나님이 여전히 잘못을 찾으시나?)
 τῷ γὰρ βουλήματα αὐτοῦ τίς ἀνθέστηκεν; (누가 그의 뜻에 저항할 수 있는가?)
- ²⁰ ὦ ἄνθρωπε, (오 사람아!)
 μενοῦνγε σὺ τίς εἶ ὁ ἀνταποκρινόμενος τῷ θεῷ; (반대로, 하나님께 되묻는 너는 누구냐?)
 μὴ ἐρεῖ τὸ πλάσμα τῷ πλάσαντι·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이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τί με ἐποίησας οὕτως;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 ²¹ ἢ οὐκ ἔχει ἐξουσίαν ὁ κεραμεὺς τοῦ πηλοῦ (또는 토기장이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
 ἐκ τοῦ αὐτοῦ φυράματος ποιῆσαι (그 흙덩어리들로부터 만들 수 있는)
 ὁ μὲν εἰς τιμὴν σκεῦος (하나는 영예롭게 쓰는 그릇을)
 ὁ δὲ εἰς ἀτιμίαν; (하나는 영예롭지 않게 쓰는 그릇을)
- ²² εἰ δὲ θέλων ὁ θεὸς ἐνδείξασθαι τὴν ὀργὴν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 줄 뜻으로)
 καὶ γνωρίσαι τὸ δυνατὸν αὐτοῦ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할 뜻으로)
 ἤνεγκεν ἐν πολλῇ μακροθυμίᾳ σκευὴ ὀργῆς (진노의 잔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κατηρησιμένα εἰς ἀπόλειαν, (멸망하기로 예비하신)
- ²³ καὶ ἵνα γνωρίσῃ τὸν πλοῦτον τῆς δόξης αὐτοῦ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ἐπὶ σκευῇ ἐλέους (공휼의 잔 위에)
 ἂ προητοίμασεν εἰς δόξαν;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어떻게 하겠는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그랬으며, 심지어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었던 바로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바울의 말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다. 그들은 바울에게 힐난조로 묻는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잘못을 찾으시나?”
 “누가 그의 뜻에 저항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잘못을 찾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음을 방증한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정죄하는 역할도 한다. 유대인들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거의 600년이 넘도록 다윗 왕조를 회복하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정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고 그 증거가 바로 현재 그들의 삶이라 여겼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인정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 창조주의 창조주 됨을 인정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으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 운행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오히려 쉽다. 이런 관념을 받아들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무지 크기를 기늠할 수 없는 우주,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은하들 중에서도 보잘것 없는 작은 행성일 뿐인 지구,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인 주제에 이 큰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분에 의해 운행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 하지만 지구상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매일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우리 각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미가 땅에 굴을 파고 사는 습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속썩이는 자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사탄의 못된 장난질로 여긴다. 중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분은 모든 질병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주위에 있는 많은 암환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 잡혀 병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찾으려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각자 삶에서 고통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죄부터 살피고 고통 앞에서 이내 좌절하기 십상이다.

그럴 때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은 심정을 느낀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때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구칠 때도 많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하는 기도 내용을 살펴 보면 이내 수궁할 것이다. 흔히들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나 SNS 에 글을 올릴 때는 은혜요 감사의 마음을 아뢰지만 막상 홀로 앉아 자신의 고통과 마주할 때면 감사의 말이 그리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며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한테는 왜 고통과 고난이 자꾸 찾아오나며 눈물을 쏟기 일쑤다.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정작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하는 일마나 술술 풀리면 걸치레일망정 하나님께 감사해한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 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통스런 현실에 압도 되어 끝내는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면 그 생각은 이내 부정당하고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내게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나며 하소연을 하게 된다. 이처럼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기까지는 평생이 걸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토기가 토기장에게 항변할 수 있을까?(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9:19~23)

- ¹⁹ Ἐρεῖς μοι οὖν· (그러면 당신들이 나에게 말[질문]할 것이다)
τί [οὖν] ἐτι μέμφομαι; (왜 하나님이 여전히 잘못을 찾으시나?)
τῷ γὰρ βουλήματα αὐτοῦ τίς ἀνθέστηκεν; (누가 그의 뜻에 저항할 수 있는가?)
- ²⁰ ὦ ἄνθρωπε, (오 사람이!)
μενοῦνγε σὺ τίς εἶ ὁ ἀνταποκρινόμενος τῷ θεῷ; (반대로, 하나님께 되묻는 너는 누구냐?)
μὴ ἐρεῖ τὸ πλάσμα τῷ πλάσαντι·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이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τί με ἐποίησας οὕτως;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 ²¹ ἢ οὐκ ἔχει ἐξουσίαν ὁ κεραμεὺς τοῦ πηλοῦ (또는 토기장이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
ἐκ τοῦ αὐτοῦφυράματος ποιῆσαι (그 흙덩어리들로부터 만들 수 있는)
ὁ μὲν εἰς τιμὴν σκεῦος (하나는 영예롭게 쓰는 그릇을)
ὁ δὲ εἰς ἀτιμίαν; (하나는 영예롭지 않게 쓰는 그릇을)
- ²² εἰ δὲ θέλων ὁ θεὸς ἐνδείξασθαι τὴν ὀργὴν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 줄 뜻으로)
καὶ γνωρίσαι τὸ δυνατὸν αὐτοῦ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할 뜻으로)
ἤνεγκεν ἐν πολλῇ μακροθυμίᾳ σκευὴ ὀργῆς (진노의 잔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κατηρησιμένα εἰς ἀπόλειαν, (멸망하기로 예비하신)
- ²³ καὶ ἵνα γνωρίσῃ τὸν πλοῦτον τῆς δόξης αὐτοῦ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ἐπὶ σκευῇ ἐλέους (공휼의 잔 위에)
ὃ προητοίμασεν εἰς δόξαν;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어떻게 하겠는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뿌리와도 같은 세 조상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맡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그의 논증을 마무리한다. 이스마엘을 대신하여 이삭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바로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악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아 두는 바람에 유월절에 장자들이 죽는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또 다시 설명한다. 토기가 토기장에게 자기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있는가 질문한다. 토기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다. 모든 그릇의 용도는 토기장이가 결정한다. 창조주와 피조물도 이와 같은 관계다. 만약 인간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며 창조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솔직히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썩 내키지 않을 것이다. 필자도 예전엔 그랬다. 하지만 삶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순종의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 후로는 점점 내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알다시피 토기장이의 비유는 바울이 처음 창안해낸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일찌기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언급한 것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친숙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사야서 40-48 장은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난의 삶을 보내다가 정한 때에 그로부터 속량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다 (참고로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부터 므낫세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유다 백성의 속량을 예언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신다. 그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⁶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찌라도 나는 네 때를 동일 것이요 ⁶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⁷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⁸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 같이 듣게 할찌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찌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찌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⁹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짚대 화 있을찢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사 45:5-9).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망령되이 행하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자기가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재차 말하지만 신앙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멸망이 임박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토기장이 이야기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는 순순히 그 명령에 따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관찰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토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 광경을 살펴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렘 18:6).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결된다. 토기장이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든다. 각각의 그릇을 어떤 용도로 쓸 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진리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선택 받은 민족이다. 그들은 귀한 그릇인가 아니면 천한 그릇인가? 사도들은 복음을 받은 후 그것을 전하다가 한 사람도 예외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들은 귀한 그릇인가 아니면 천한 그릇인가?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불품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는 또 어떤 그릇인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그릇인 것 같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격없는 자들이 자격을 얻는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9:24~26)

- ²⁴ Οὕς καὶ ἐκάλεσεν ἡμᾶς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οὐ μόνον ἐξ Ἰουδαίων (유대인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ἐξ ἐθνῶν, (이방인들로부터도)
- ²⁵ ὡς καὶ ἐν τῷ Ὠσηε λέγει· (호세아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듯이)
καλέσω τὸν οὐ λαὸν μου λαὸν μου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겠고)
καὶ τὴν οὐκ ἠγαπημένην ἠγαπημένην·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다])
- ²⁶ καὶ ἔσται ἐν τῷ τόπῳ οὗ ἐρρέθη αὐτοῖς· (그들에게 말씀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οὐ λαός μου ὑμεῖς,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ἐκεῖ κληθήσονται υἱοὶ θεοῦ ζῶντος· (거기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무리 유대인들이라 해도 이쯤 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차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만도 하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해 나간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방인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은 일을 갑자기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계획을 밝히 알리시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나하나 실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도,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농담을 하는 분이 아니다.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 23:19).

하나님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다.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말인가?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⁴³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¹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¹⁵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¹⁶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¹⁷ 하나님은 약속을 기점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¹⁸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 6:13-18).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예언하셨다.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읽어보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홀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호 2:23).

이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이미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특별히 사마리아와 두로, 시돈 등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도 찾으셨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여행하던 중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외쳤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마 15:22).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여인의 계속되는 외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 보시라고 권유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대답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연히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을 구원하시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 중에 열 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세계로 확산된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른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다.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의 임무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이미 이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된 이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나안 여인은 어느새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자신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말 간절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도 뜻 밖이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마 15:26).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라도 견딜 수 있었다.

“주여 옹소이다미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마 15:27).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수모를 견디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을까? 이처럼 이방인의 구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겠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서, 또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사람을 선택하시고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당신 스스로에게서 그 이유를 찾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가나안 여인이 스스로에게서 무슨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겠는가? 복음은 자격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9:27~29)

- 27 Ἡσαΐας δὲ κρᾶζει ὑπὲρ τοῦ Ἰσραήλ·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기를)
ἐάν ᾗ ὁ ἀριθμὸς τῶν υἱῶν Ἰσραὴλ ὡς ἡ ἄμμος τῆς θαλάσσης,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지라도)
τὸ ὑπόλειμμα σωθήσεται· (남은 자들만 구원될 것이다)
- 28 λόγον γὰρ συντελῶν καὶ συντέμνων· (말씀을 완전히 그리고 지체없이)
ποιήσει κύριος ἐπὶ τῆς γῆς· (주께서 이 땅위에서 이루실 것이다)
- 29 καὶ καθὼς προείρηκεν Ἡσαΐας· (이사야가 미리 말하였듯이)
εἰ μὴ κύριος σαβαώθ ἐγκατέλιπεν ἡμῖν σπέρμα, (만군의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았다면)
ὡς Σόδομα ἃν ἐγενήθημεν καὶ ὡς Γόμορρα ἃν ὁμοιωθῆμεν· (우리가 소돔이 되고 고모리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논증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구원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논증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호세아서를 인용할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누구나 구원받게 돼 있으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정도로 이해했을 것이다.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의 논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드디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말을 던진다. 그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다짜고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다.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될 것이다”(롬 9:17).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한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남은 자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추가적인 선택에 의해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의미도 된다. 결국 이 논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는 처음 부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이 논증을 시작하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롬 9:6).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이 주장한 명제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서 남은 자란 단지 시간적으로 종말까지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기로 구별된 사람들 전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인가? 바울은 이미 ‘진노의 그릇’(22절)과 ‘공휼의 그릇’(23)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진노의 그릇과 공휼의 그릇을 예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공존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은 진정한 영적인 아들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진노의 그릇과 공휼의 그릇으로 나누셨을까? 놀랍게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은 세레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다. 세레 요한은 이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그 때에 세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²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중략)...⁵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⁶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⁷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⁸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⁹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 3:1-9).

세레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기뻐하라.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으니 준비하라고 해야 마땅하다. 게다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동안 참으로 수고했다고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에게는 합당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해야 했다. 그런데 세레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었으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들을 꾸짖었다. 도대체 요한은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한 죄인들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율법을 힘써 지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는 그들을 정죄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세레 요한이 그들을 향해 이처럼 격하게 저주의 말을 퍼부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며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길잡이가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해 내기에 바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남들을 정죄하고 속박하는 굴레가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은 자에서 배제되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누가 예수님을 찾았는가? 말씀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 불능의 상황임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율법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사로 잡아와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 세운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회개거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죄를 지으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아예 하나님의 의에 턱없이 모자라는 죄인이다. 바닷물에 물 한 컵을 더한들 바닷물이 불어나겠으며, 한 컵을 덜어낸들 바닷물이 줄어들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이유로 구원받았습니까?

의의 역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9:30~33)

- ³⁰ Τί οὖν ἐροῦμεν;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ὅτι ἔθνη τὰ μὴ διώκοντα δικαιοσύνην κατέλαβεν δικαιοσύνην,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므로)
δικαιοσύνην δὲ τὴν ἐκ πίστεως,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 ³¹ Ἰσραὴλ δὲ διώκων νόμον δικαιοσύνης εἰς νόμον οὐκ ἔφθασεν.
(그러나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 ³² διὰ τί; (어떻게 그런 일이?)
ὅτι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ἀλλ' ὡς ἐξ ἔργων· ([저희가] 믿음에 원천을 두지 않고 행위에 원천을 두었기 때문이다)
προσέκοιμαν τῷ λίθῳ τοῦ προσκόμματος, (저희가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졌다)
- ³³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ἰδοὺ τίθημι ἐν Σιών λίθον προσκόμματος καὶ πέτραν σκανδάλου,
(보라 내가 시온에 걸어넘기는 돌과 넘어뜨리는 반석을 둘 것이다)
καὶ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 οὐ κατασχυνθήσεται.
(그 위에 믿음을 두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충실히 지켜온 유대인들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열심히 의를 추구한 사람은 하면 할수록 의에서 멀어지고 반대로 의를 이루는 건 생각지도 못하거나 혹은 생각했다 할지라도 아예 실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거저 의를 얻었으니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의 설명은 의를 얻기 위해서는 도리어 의와는 답을 쌓고 거꾸로 살아가야 한다는 역설처럼 들리기까지 한다.

아담 때로부터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된 인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을 추구해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테도 꿈에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것을 선이라 믿고 그 선에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그들에게는 이내 선악과처럼 되고 말았다.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 분명 길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거룩 그 자체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의와 거룩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럴까? 역설적이지만 그들의 의를 빛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인들이었다. 누가가 기록한 한 일화를 예로 들어 보자.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18:11).

그는 토색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 토색이라는 말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지나친 탐욕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단 한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불의한 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어떠한 간음죄도 저질러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마음을 뺏길까봐 아예 멀찍이 돌아가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의 모든 사항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지켰고, 하나님의 의

에 어긋나는 일은 그 무엇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마지막 말이 걸작이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 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 마침 어떤 세리를 만났다. 이 일이 그에게는 너무 잘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나타난 것이다. 바리새인은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 했을 것이다. 그는 이 세리와는 전혀 다르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 나머지 세리에게 들 릴 정도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 18:12).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은가? 죄도 짓지 않는데다가 하나님께 이토록 지극정성이니 말이다. 그는 시편의 첫 구절 이 가르치는 교훈을 그대로 따라 살아 왔다.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적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와 율법을 주야 로 묵상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다. 이 정도면 당연히 복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 예수님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손을 들어 주 셴다. 세리는 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자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울기만 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이다. 반대로 율법을 따라 살았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의에 미치지 못했다. 세상적인 잣 대나 율법의 잣대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바리새인의 삶을 비난할 수는 없다. 비난은커녕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를 입증해 보이려 했고 그것이 가능 하다 여겼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기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신은 이미 죄의 구렁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불 썩히 여겨달라며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뿐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14).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미 높은 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낮아 질 수 없다. 반대로 자신이 죄인 임을 알면서도 아닌 척 하기도 불가능하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믿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보 면 적어도 자신은 그들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겸손하라 한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를 고백할 수 는 없는 일 아닌가? 반대로 세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았다. 그는 스스로 겸손한 척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고 세리는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을까? 그 잣대는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면 의로운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되 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이라는 잣대로 각자의 삶을 판단하면 우리 중 누구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율법을 인간들 마음대 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에 비추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의롭게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 수님,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인간들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하셨다. 인간들은 각자의 행위를 토 대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잣대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하셨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 내어 의인이 되고자 했고 세리는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자랑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쳤다. 과연 율법이 누구에게 올바르게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을까?

묵상을 위한 질문

율법을 기준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사람들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0:1~4)

¹ Ἀδελφοί, (형제들아)

ἡ μὲν εὐδοκία τῆς ἐμῆς καρδίας καὶ ἡ δέησις πρὸς τὸν θεὸν (사실 나의 마음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ὑπὲρ αὐτῶν (그들을 대신하여)
εἰς σωτηρίαν.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함이라])

² μαρτυρῶ γὰρ αὐτοῖς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한다)

ὅτι ζῆλον θεοῦ ἔχουσιν ἀλλ' οὐ κατ' ἐπίγνωσιν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³ ἀγνοοῦντες γὰρ τὴν τοῦ θεοῦ δικαιοσύνην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면서)

καὶ τὴν ἰδίαν [δικαιοσύνην] ζητοῦντες στήσαι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를 애쓰면서)

τῇ δικαιοσύνῃ τοῦ θεοῦ οὐχ ὑπετάγησαν.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⁴ τέλος γὰρ νόμου Χριστὸς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παντὶ τῷ πιστεύοντι.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유대인들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든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만큼 기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들 스스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해 간 역사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율법을 주고 축복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을 주신 백성이라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적어도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였다.

그들에게 주신 땅은 이집트에 비하면 별로 비옥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땅에 비하면 크기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목초지는 얼마 없고 대부분이 산악 지대인데다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광야다. 그 뿐인가? 팔레스틴 땅 북쪽에는 번갈아가며 강대한 이방 제국이 일어났고 남쪽으로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이집트가 버티고 있었다. 남쪽과 동쪽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들, 즉 모압과 암몬, 이스마엘, 에돔 족속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작은 영토를 넓힐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토를 확장했다고 하지만 겨우 팔레스틴의 주변만을 정복했을 뿐인데 그마저도 채 100년이 못되어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 후 300년이 못 되어 열 지파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한 이후로는 줄곧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방신을 믿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토록 유린당하는 건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 자기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잣대로 재해석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이다. 그는 스스로를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차저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도 충격이려니와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

는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졌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 방으로 퍼져나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빛이 되고 길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모험만 붙잡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으니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어려웠다. 스스로를 선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 많고 논리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배려하는 분으로 이해한다. 그런 예수님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퍼부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유대주의에 대해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마 23:2-3)라는 말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강론은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독설로 바뀐다. 예수님은 모두 일곱 번의 저주와 화를 말씀하셨다. 이 설교는 요한계시록에 쓰인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처럼 단호하고 비장하기까지 하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마지막 비판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신다.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33).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신 걸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엄청 큰 죄악을 저질렀나 보다 착각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예수님께 비난받은 이유는 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쳤고, 외식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본래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다보면 필연 그것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시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위선을 조장한다. 하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면의 문제를 건드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10:2-3).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내면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추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 비난 받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다. 스스로의 실체를 깨달은 자라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그것은 관념 속의 구원이 아니다. 정말이지 성도들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죄된 존재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0:5~7)

- ⁵ Μωϋσῆς γὰρ γράφει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τὴν ἐκ [τοῦ] νόμου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ὅτι ὁ ποιήσας αὐτὰ ἄνθρωπος ζήσεται ἐν αὐτοῖς.
(율법에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율법의 의]로 살 것이다)
- ⁶ ἢ δὲ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οσύνη οὕτως λέγει·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μὴ εἴπῃς ἐν τῇ καρδίᾳ σου· (너희 마음에 말하지 말라)
τίς ἀναβήσεται εἰς τὸν οὐρανόν·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τοῦτ' ἔστιν Χριστὸν καταγαγεῖν·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 ⁷ ἢ· (또는)
τίς καταβήσεται εἰς τὴν ἄβυσσον·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느냐?)
τοῦτ' ἔστιν Χριστὸν ἐκ νεκρῶν ἀναγαγεῖν·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또 다시 율법 이야기를 꺼낸다.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그는 지치지도 않는 모양이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의 글을 읽는 로마의 교인들도 알만큼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율법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지 그는 10 장 5 절에서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끄집어 낸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율법의] 의로 살 것이다” (롬 10:5). 바울이 인용한 모세의 말씀은 레위기 18 장 5 절이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³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⁴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⁵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⁶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8:1-6).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와 법도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이어지는 규례와 법도의 내용을 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법도를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린 명령은 사실 인간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없다는 말도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율법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내용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율법 조문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동안 지켰던 모든 율법적 행위들이 무효가 된다. 일찌기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통해 율법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다.

“⁹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¹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¹¹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9-11).

야고보가 한 이 말은 사랑의 실천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 내용이 맞닿아 있다. 예수님도 실제적인 사랑이 없이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지금 여기서는 율법 그 자체를 인간들이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로 한다. 인간들이 율법을 전부 다 지켜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율법의 본래 의미는 뒤로 하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건 좀더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한 마디로 사랑이라고 정의하셨다.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생각해 보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의 것들을 탐할 수 있으며, 어찌 간음할 수 있으며, 어찌 살인할 수 있겠는가? 인간들에게서 이런 행위가 나오는 이유는 이웃 사랑이 결여된 때문이지 율법 그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바울이 레위기 18 장 5 절을 인용한 이유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 봐야 고작해야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정도다. 하지만 율법의 내용은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다. 뭔가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얻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지키라 하면서 어떤 함정을 놓아 인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 문제를 인간들에게 맡겨 놓지 않으시고 스스로 직접 나서서 해결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히 구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의로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⁵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⁶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⁷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⁹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인들, 특히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잊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한국 교회의 이슈는 단연 동성애다. 동성애는 성경이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분명히 죄다. 필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동성애를 금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손가락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성경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율법이 있더라도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녀의 행위가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 매여 율법적인 삶을 사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행위다. 구원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는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나타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율법의 의를 어떻게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이 변해가고 있나요?